

한국축구 '민을맨'... 선행도 '국가대표'



한국축구 희망 '기성용'

광주·전남 광구일보 동아리분
한하리 조 보배 성서인!
축구 국가대표 기성용!

2014. 9.
기성용
2014. 10.
기성용

최근 추석 인사차 기성용의 스승인 순천중앙초등학교 정한균 감독과 통화했다. 대뜸 기성용 자랑이다. "성용이가 후배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축구용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8년동안 지속적으로, 그것도 나이키로요. 모교를 잊지 않고 후배들을 챙겨줘 너무 고맙습니다. 메시·NEY마르 등 세계적 축구스타들도 후배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모교 순천중앙초에 8년간 3억원 축구용품 지원

◇성용, 사랑을 품다=정 감독은 "지난해 성용이가 나이키와 계약을 할 때 모교(순천중앙초) 후배들에게 훈련 용품을 제공해달라고 옵션을 걸었다"고 밝혔다. 기성용과 나이키의 계약기간이 8년이니 '기성용 키즈'들은 최고의 브랜드를 8년간 후원받게 됐다. 훈련 용품 비용이 연간 3000만~4000만원 든다니 3억원가량 후원하는 셈이다.

기성용은 후배들을 위해 전용버스도 선물했다. 프로축구단이 운영하는 것보다 더 고급이다. 기성용 덕이다.

2012년 순천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기성용이 고마워 순천시와 9000만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기성용·김영광 등 순천중앙초 출신 프로 선수 10여명이 십시일반 모으고 전남도교육청도 보태 축구부 전용버스를 마련했다.

기성용은 지난해 탤런트 한혜진과의 결혼식 축의금 6000만원을 월드컵전에 기부했고, 선수들과 유니폼 판매를 통한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다.

EPL 개막전 첫 골 등 3경기 풀타임 '스완지 심장'

◇성용, 날다=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개막전부터 첫 골을 터뜨리는 등 리그 3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해 풀타임 그라운드를 누비며 스완지시티의 주축으로 거듭났다.

기성용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경기 전체를 조율하면서도 상대 공격의 맥을 끊는 강력한 태클과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펼치는 등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 홈 관중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영국 언론도 '스완지의 심장'이라며 기성용에



순천 중앙초 정한균 감독 부부와 부인 한혜진씨.

계 찬사를 보냈다.

주기도 상한가다. 선수 랭킹이 무려 9계단 경종 뛰었다. 지난 3일 EPL 홈페이지에 발표된 2014~2015시즌 셋째 주 선수 랭킹에서 67점을 받아 17위에 올랐다. 지난주 보다 9계단 상승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10위권 진입은 눈 앞이다.

후배들, 유소년 대회 '우승'...성적으로 화답

◇'성용 키즈'도 비상=기성용의 후예들의 활약도 눈부시다.

순천중앙초는 최근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펼쳐진 '2014 화랑대기 전국 초등 학교 유소년 축구대회' U-10(4학년) 부문에서 우승했다. 또 U-11(5학년부)에서는 준우승, U-12(6학년) 화랑컵에서는 3위에 올랐다. 4·5·6학년 전 부문 입상은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쾌거다.

'기성용 키즈'의 꿈은 '기성용'이다. U-11부문에서 6골을 몰아넣어 득점왕에 오른 김민제는 "열심히 해 꼭 영국 프리미어리그로 가겠다"고 의욕을 밝혔다. U-12부문 장려상을 받은 홍준기는 "기성용 선배님같은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며 자랑스러워했고, 미기상(美技賞)을 수상한 유도연은 "해마다 유니폼과 슈리닝을 지원해줘 고맙다"고 전했다.

귀국 때마다 스승 정한균 감독 찾아 문안

◇성용, 의리도 국가대표=기성용은 의리도 국가대표급이다. 한국에 들어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스승인 정 감독을 찾는다. 지난 7월 브라질월드컵이 끝난 뒤에 순천에 들렀다. 부인 한혜진과 순천에서 하룻밤 묵으며 정 감독 부부를 만났다.

정 감독은 기성용의 활약을 한혜진에게 있다고 말했다. "성용이가 운동을 잘하는 이유는 상냥하고 다정다감한 혜진씨에게 있는 것 같다"며 "축구는 집중력이 중요한데 혜진씨가 성용이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칭찬했다.

기성용은 광주일보 독자들에게도 잊지 않고 안부를 전했다. 광주일보 독자들분 한가위 잘 보내시라고...

스승 정한균 감독도 즐겁다. 화랑대기 U-10을 우승으로 이끈 정 감독은 순천중앙초에서만 99개 대회 우승을 챙겼다. 한 번 만 우승을 보태면 100회 대회 우승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 학교 100개 대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된다. 정 감독은 지난 1983년 12월부터 순천중앙초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31년간 ▲국제대회 10회 ▲전국대회 20회 ▲도내대회 69회 등 모두 99차례의 우승기록을 일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안락한 제주여행의 시작은

SEA WORLD LINE!

저희 승무원 일동은 고객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전천후 초요화 크루즈 선박

씨스타크루즈호

국체 편수 24,000톤급
여객 정원 1,935명
자랑(승풍) 500대

고객의 마음을 믿고 갑니다 | 고객이 선택한 10년 연속 제주 기점 수송률 1위 항로
다양한 선박과 시간대! 어디에서나 편리한 접근성!

프리미엄급 초고속 카페리
해남 우수영 로얄스타호 제주

국내 최대·최고 초요화 크루즈여객선
목포 씨스타크루즈호 제주

섬 속의 섬, 추자도를 경유하는
목포백파 핑크돌핀호 추자 제주

씨월드고속훼리(주) 대표전화 1577-3567 **씨월드고속훼리** 검색

제주해상관광문화를 선도하는 씨월드고속훼리 베스트 파트너 제휴 여행대리점 및 물류업체 제공